

제8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2016 제주선언문

1. 서 문

- 1.1. 2016년 8월 27일~8월 28일, 제8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가 대한민국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장관, 일본 문부과학성 마쓰노 히로카즈 대신, 중국 문화부 덩웨이 부부장이 참석하였다.
- 1.2. 우리는 2007년 3국 문화장관회의가 시작된 이래 ‘광주 공동합의문(2013)’, ‘요코하마 공동선언문(2014)’에서 밝힌 ‘공동의 가치추구를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구축’이라는 정신을 계승하여 왔다. 또한 2015년 합의한 ‘2015~2017 칭다오 액션플랜’을 통하여 3국 협력이 문화적 교류확산과 이해의 가속뿐만 아니라 3국 모두에게 사회·문화적 포용과 가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해왔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 1.3. 우리는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며, 오랜 기간 구축해온 한중일간 문화교류 확대와 연대강화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 1.4. 우리는 3국이 유치하는 국제행사 및 올림픽 등 스포츠경기에서 보다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한중일 공동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아시아를 넘어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동아시아적 가치 창출에 노력하자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2. 한중일 문화발전을 위한 비전의 구현과 이행강화

- 2.1. 우리는 3국의 문화 발전을 위한 동아시아 문화 비전의 구현에 노력한다.

한중일 3국은 역대 문화장관회의의 기본 정신인 “문화를 통해 3국 모두의 국가와 도시를 발전시키고, 국민에게 혜택을 주며, 세계 속 동아시아의 정체성을 강화한다.”는 정신을 재확인하고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 2.2. 우리는 3국의 문화적 번영과 발전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의 문화교류 이외에도 다양한 민간교류 확대의 필요성에도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러한 차원의 지속가능한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 간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3국 협력 사업추진을 위한 이행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 2.3. 우리는 문화산업의 교류와 협력을 다지고 문화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인 저작권 보호를 위해 상호 협조하고 노력하자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3. 동아시아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체화

- 3.1. ‘국가와 도시의 발전’과 ‘동아시아 문화정체성의 강화’는 그간 우리가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 추진의 기본 가치이다.
- 3.2. 우리는 2017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서 한국의 대구광역시, 일본의 교토시, 중국의 창사시를 선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동아시아 문화도시간의 활발한 교류를 기대한다.
- 3.3. 우리는 3국의 우호 협력 관계가 심화될수록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 번영에도 기여하는 바 동아시아문화도시 네트워크와 같은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 3.4. 3국의 동아시아문화도시에 관한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3국 문화부는 ‘동아시아문화도시 네트워크’ 구성관련 원칙에 합의 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가 간·문화도시 간의 지속적인 연계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4. 한중일 공동의 문화가치 발굴과 인적교류 확대

- 4.1. 우리는 3국의 공동적 문화가치의 발굴 및 공유를 통해 한중일 3국 모두가 조화로운 사회형성을 지향하자는 방향에 합의하였다. 국민 간 교류와 협력이 3국간 이해의 확대에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상호 이해와 신뢰증진을 위해 다양한 인적·문화적 교류를 확대·발전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 4.2. 우리는 3국간의 문화교류에 있어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 공공문화기관간의 인적 교류확대를 통한 3국 협력의 실질적 효과 제고를 위하여 관련 기관간의 네트워크 및 연구교류, 박물관 전시 교류 등과 같은 협력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 4.3. 우리는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3국 청년간 문화예술 및 ‘한중일 학생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사업’과 같은 문화콘텐츠산업분야의 교류증진과 교육훈련 기회 제공을 통해 청년 고용창출에 기여하기로 의견을 같이 하였다.
- 4.4. 우리는 3국간에 자국의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젊은 예술가를 포함한 문화인·예술가를 상호 파견하는 동아시아 문화교류사절단 사업의 유효성을 인식하며, 앞으로 계속해서 협력하자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5. 한중일 문화올림픽 프로그램 실현을 통한 상생발전 추구

- 5.1. 우리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대회, 2020년 도쿄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대회,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 대회가 미래 세대의 문화자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스포츠와 문화를 융합한 ‘한중일 문화올림픽’ 프로그램(학술 심포지엄, 공동작품 창작·발표 및 축제 등)의 공동개발과 추진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 5.2. 또한 올림픽·장애인올림픽대회 개최를 계기로, 개최도시인 평창, 도쿄, 북경에 각국이 문화사절단(예술가, 예술단)을 파견하는 등 국제무대에

서 문화예술제를 포함한 문화행사를 적극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공동으로 동아시아문화를 널리 알리고 그 매력을 선보이며 한중일 3국의 연이은 올림픽 개최의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기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6. 문화유산 교류협력의 지속 추진

- 6.1. 우리는 한중일 3국이 보유한 유·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및 계승을 위해 밀접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하고 각국의 성공사례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한중일 문화유산 국제협력 및 향후 세계 각국의 문화유산 보호 및 계승의 협력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
- 6.2. 우리는 무형유산이 인류의 삶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대대로 전승되는 진귀한 자산이라는데 뜻을 같이하고, 무형문화재 분야의 유네스코 카테고리 2센터[아태무형유산센터(ICHCAP), 아태국제훈련센터(CRIHAP),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연구센터(IRCI)]들의 활동을 지원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형문화재 보호 및 전수를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 6.3. 우리는 무형문화유산 계승자 및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의 교류 및 기술 향상을 위해 해외교육·연수 및 교류행사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로 의견을 같이 하였다.

7. 결론

- 7.1. 우리는 한중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동아시아의 미래지향적 문화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동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 7.2. 한중일 3국은 동아시아문화도시, 한중일예술제, 한중일 예술포럼, 동아시아 문화교류사절단 등 현재까지의 장관회의 성과가 3국 문화교류의 심화, 실무협력추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상기 성과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동의하였다.

7.3. 2017년 ‘제 9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는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회의 일정과 의제 등 추가적인 사항에 대한 사전협의를 위한 국장급
회의는 개최국에서 주최하기로 하였다.

본 합의문은 2016년 8월 28일 제주도에서 서명한다.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 종 덕

일본국 문부과학성 대신
마쓰노 히로카즈(松野 博一)

중화인민공화국 문화부 부부장
딩웨이(丁伟)

第8回 日中韓文化大臣会合 2016 済州宣言

1. 序文

- 1.1. 2016年 8月 27日及び8月 28日、第8回日中韓文化大臣会合が大韓民国 済州道で開催された。今回の会議では日本国文部科学大臣松野博一、中国文化部副部長丁伟、大韓民国文化体育観光部長官金鍾徳が出席した。
- 1.2. 我々は、2007年3ヵ国文化大臣会合が開始されて以来、‘光州共同コミュニケ(2013)’、‘横浜共同声明(2014)’ に示したように、‘共同の価値追及のための未来志向的協力関係構築’という精神を継承してきた。また、2015年に合意した ‘2015～2017青島行動プログラム’を通じて、3ヵ国の協力が文化交流の拡大と理解の増進に留まらず、3ヵ国すべてにおいて社会・文化的抱擁と価値に対する理解を増進してきたことを高く評価した。
- 1.3. 我々は、文化多様性の価値を尊重し、これまで構築してきた日中韓の文化交流拡大と連帯強化のために、より積極的な努力と協力が必要であることの認識を同じくした。
- 1.4. 我々は、3ヵ国が誘致する国際行事及び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などのスポーツ競技大会において、より一層緊密な協力を通じて国際社会で日中韓の共同メッセージを発信し、アジアを超えて人類の平和と繁栄に寄与する東アジア的価値創出に努力することで意見が一致した。

2. 日中韓文化発展のためのビジョンの具現化と履行強化

- 2.1. 我々は、3ヵ国の文化発展のために東アジア文化ビジョンの具現化に努力する。日中韓3ヵ国は、これまでの文化大臣会合の基本精神である“文化を通じて3ヵ国すべての国と都市を発展させ、全ての国民が文化を享受することができ、世界の中で東アジア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強化する”という精神を再確認し、未来志向の発展方向を模索した。

2.2. 我々は、3カ国の文化的繁栄と発展のための協力の重要性に対する認識を共有し、政府レベルの文化交流だけでなく、多様な民間交流拡大への必要性にも意見を同じくした。こうした持続可能な協力を強化し、国家間の理解を増進するために、3カ国協力事業推進のための履行努力を強化する。

2.3. 我々は、文化産業の交流と協力を固め、文化産業の発展を支持する政策を積極的に支持すること、及び文化産業の発展の基盤である著作権の保護について、協調して取り組むことで意見を同じくした。

3. 東アジアネットワーク協力体系の具体化

3.1. ‘国家及び都市の発展’と‘東アジア文化アイデンティティの強化’は、これまでアジア文化都市事業推進の基本的な価値である。

3.2. 我々は、2017年の東アジア文化都市として、日本の京都市、中国の長沙市及び韓国の大邱広域市を選出することを決定した。東アジア文化都市間で活発な交流が行われることを期待する。

3.3. 我々は、これまでの東アジア文化都市事業が、3カ国の友好協力関係の深化のために極めて有効であり、東アジアの安定と平和繁栄に寄与するものであることを確認するとともに、更なる3か国間の相互交流と協力関係を促進するため、東アジア文化都市ネットワークのような協力体系が必要である認識を共有した。

3.4. 我々は、3カ国の東アジア文化都市に関する取組が、今後、総合的・体系的に推進されるように、東アジア文化都市ネットワークを構成することに原則として合意し、これを通じて国家的・文化都市間の持続的連携協力が更に強化されることを期待する。

4. 日中韓共同の文化価値発掘と人的交流拡大

- 4.1. 我々は、3カ国の共同的文化価値の発掘及び共有を通じて、日中韓3カ国すべてが調和する社会形成を目指す方向で合意した。国民間の交流と協力が、3カ国間の理解拡大の重要な基礎になる点を認識しつつ、相互理解と信頼増進のため、多様な人的・文化的交流を拡大・発展していくことに意見を同じくした。
- 4.2. 我々は、3カ国間の文化交流において美術館、博物館、図書館などの公共文化機関間の人的交流拡大を通じて、3カ国における実質的な協力を促進するために、関連文化機関間のネットワーク及び研究交流、博物館展示交流などの協力を引き続き推進して行く。
- 4.3. 我々は、青年文化芸術専門人材の養成の必要性に注目し、3カ国間の青年間の文化芸術及び「日中韓学生アニメーション共同制作等事業」のような文化コンテンツ産業分野の交流増進と教育訓練機会の提供を通じて、青年の雇用創出に寄与することで意見を同じくした。
- 4.4. 我々は、3カ国間において自国の文化を紹介するため、若い芸術家を含む文化人・芸術家を相互に派遣する東アジア文化交流使事業の有効性を認識し、今後協力を進めることで意見を同じくした。

5. 日中韓文化オリンピックプログラムの実現を通じた共存発展の追及

- 5.1. 我々は、2018年平昌冬季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競技大会、2020年東京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競技大会、2022年北京冬季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競技大会が次の世代に文化資産として残るように、スポーツと文化を融合した‘日中韓文化オリンピックプログラム’(学術シンポジウム、共同作品創作発表及び文化イベントなど)の共同実施に向けて協力していくことで意見を同じくした。
- 5.2. 我々は、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開催をきっかけに、開催都市で

ある平昌・東京・北京に各国から文化使節団(芸術家、芸術団)を派遣するなどし、国際的な舞台で文化芸術祭などを積極的に開催することによって、共同で東アジア文化を発信してその魅力を披露し、日中韓のオリンピック連続開催の歴史的・文化的意味を記念しようということで意見を同じくした。

6. 文化遺産交流協力の持続推進

6.1. 我々は、日中韓3ヵ国が保有する有形無形の文化遺産の保護及び継承のために、密接な疎通と協力を維持し、各国の成功事例と関連情報を共有し、日中韓文化遺産国際協力及び今後における世界各国の文化遺産保護と継承協力を寄与して行く。

6.2. 我々は、無形遺産が人類の暮らしと密接につながり、代々伝承された貴重な資産であることを共に認識し、無形文化財分野のユネスコカテゴリー2センター(ICHCAP、CRIHAP、IRCI)の活動を支援し、アジア太平洋地域の無形文化財保護及び伝授のために実質的に寄与する。

6.3. 我々は、無形文化遺産の保護及び継承に携わる関係者の交流及び技術の向上のために、海外教育・研修及び交流行事を積極的に展開することで意見を同じくした。

7. 結論

7.1. 我々は、日中韓3ヵ国協力の重要性を再認識し、東アジアの未来志向的文化発展の基盤をつくるため、共同協力をさらに強化して行く。

7.2. 我々は、東アジア文化都市、日中韓芸術祭、日中韓文化芸術教育フォーラム、東アジア文化交流使事業など、これまでの会合の成果が3ヵ国の文化交流の深化、また実務協力推進において重要な役割をしてきたことで認識を共にし、上記の成果を維持し続けることで同意した。

7.3. 2017年「第9回日中韓文化大臣会合」は、日本で開催することとした。
会議の日程と議題など追加事項のための局長級事前会議は開催国で主催することとした。

本合意文は、2016年8月28日済州道で署名する。

署名人

日本国
文部科学大臣

中華人民共和国
文化部副部長

大韓民国
文化体育観光部長官

第八次 中日韩文化部长会议

2016 济州共同文件

1. 序言

1.1 2016年8月27日至28日，第八次中日韩长会议在韩国·济州岛召开。中华人民共和国文化部部长丁伟、日本国文部科学大臣松野博一、大韩民国体育观光部长官金钟德（以下简称“三方”）出席会议。

1.2 自2007年第一次举行中日韩三国文化部长会议以来，三方秉承了共同签署的“光州共同文件(2013)”，“横滨共同文件(2014)”中提出的“为了追求共同价值，构建长远面向未来合作关系”精神，全面开展三国文化交流与合作。2015年三方共同签署了《青岛行动计划（2015-2017）》，进一步加深了相互理解和友好合作，并增进了三国对社会、文化的包容性与多样性的理解。

1.3 三方一致同意尊重文化多样性，更加积极努力合作，扩大长期以来三方构筑的文化交流网络，强化三国纽带关系。

1.4 三方同意以国际重大活动以及奥运会等体育赛事为契机，通过强化三方的文化联系与务实合作，在国际舞台上展现出三国相互尊重、平等交流、密切合作的形象。

2. 努力构建并实践中日韩文化发展蓝图

2.1 三方共同努力为中日韩三国的文化发展共筑蓝图。三方再次重申历届三国的文化部长会议遵循的“通过文化使三国以及三国的城市更加发展繁荣，为人民谋福利，强化东亚合作”的基本精神，并就面向未来可持续发展方向进行探索。

2.2 三方一致认同为促进文化繁荣发展而进行的合作十分重要，有必要扩大官方文化交流以及形式多样的民间文化交流。三方将为进一步加强民间合作的可持续性，增进国家间的相互理解，促进三国合作事业不断发展而加强努力。

2.3 三方一致同意共同致力于加强文化产业交流与合作，积极采取支持文化产业发展

的政策，保护文化产业发展的基础-知识产权。

3. “东亚文化之都”联盟的具体措施

3.1 “国家和城市的发展”以及“强化东亚文化的交流与合作”是三方东亚文化之都项目推进的基本价值。

3.2 三方决定将中国长沙市、日本京都市和韩国大邱广域市评选为2017年“东亚文化之都”，并希望“东亚文化之都”之间开展活跃交流。

3.3 三国友好合作关系的不断深化，有利于东亚和稳定繁荣。三方一致认为需要建立类似“东亚文化之都”联盟的合作体系。

3.4 为了能够更加全面、系统地推进与东亚文化之都间的交流与务实合作，三方原则性同意构建“东亚文化之都”联盟，以强化国家间、城市间的持续合作。

4. 发掘中日韩三国的优秀文化价值，扩大人员交流

4.1 经过共同协商，三方将通过发掘分享优秀的文化价值观，使三方的社会能够朝着更加和谐的方向发展。三方意识到三国人民间的交流和合作是增进三国间理解的重要标准，因此，为了增进相互理解和信任，三方认为需要扩大并加强人文交流。

4.2 在三国文化交流合作方面，通过加强图书馆、美术馆、博物馆、等公共文化机构的人员交流，以提高三国合作所带来的实际成果。三方将促进相关机构间合作关系网络的建立、推进研究交流以及博物馆展览交流等项目的合作。

4.3 三方一致认为，应加强青年文化艺术人才的培养，关注三国文化艺术和文化产业领域的交流和培训，鼓励开展类似“中日韩青少年动漫共同制作项目”，以此为青年在就业方面提供帮助。

4.4 三方一致认同，互相派遣包括青少年艺术家在内的文化艺术界人士的东亚文化交流使项目有利于相互介绍本国文化，并一致表示，将继续合作。

5. 以中日韩举办奥运会为契机推进文化共同发展

5.1 为将2018年平昌冬季奥运会残奥会、2020年东京奥运会残奥会、2022年北京冬季奥运会残奥会打造成传承和弘扬优秀文化的平台，三方一致表示将支持并共同推进中日韩奥运会文化项目（如，学术研讨会、共同制作作品发表、庆祝展演活动等）。

5.2 以举办奥运会为契机，三国通过向平昌、东京、北京派遣奥运文化使节团（艺术家、艺术团），积极推进在国际上举办文化艺术节等活动，合力宣传东亚文化，展示东亚魅力，纪念三国接连举办奥运的历史和文化意义。

6. 持续深化文化遗产交流合作

6.1 三方一致认为非物质文化遗产和人们的生活紧密相连，是人类世代传承下来的财富。各国将继续共同支持联合国教科文组织亚太地区非物质文化遗产二类中心(CRIHAP, ICHCAP, IRCI)在保护非物质文化遗产方面开展的工作。努力为亚太地区非物质文化遗产的保护和传承做出实质性的贡献。

6.2 为了中日韩非物质文化遗产和文化遗产得到更好的保护和传承，三方将持续保持紧密的沟通与合作，共享保护和传承方面的成功案例，分享相关信息，为中日韩三国文化遗产的交流合作，以及世界各国文化遗产的保护和传承做出积极贡献。

6.3 三方一致同意加强三国非遗传承与保护技艺的交流与提升，积极开展中日韩非遗传承人群海外研修、培训、交流活动。

7. 结束语

7.1 三方再次就三国合作的重要性达成共识，将继续强化以东亚未来发展为基础的协同合作。

7.2 三方一致认为，东亚文化之都、中日韩艺术节、中日韩文化艺术教育论坛、东亚文化交流使等历届部长会议成果，为深化三国文化交流、推动务实合作，发挥了重

要作用，同意将继续实施以上成果。

7.3 2017年“第九次中日韩文化部长会议”决定将在日本举行。为了进一步讨论具体的会议日程，以及议题的其他事项，事前将在主办国举行筹备会议。

本文件于2016年8月28日在韩国济州道签署。

签署人：

中华人民共和国文化部 副部长

日本国文部科学省 大臣

大韩民国文化体育观光部 长官